

## KAIST 출신 이슬기씨 유럽 최대 전자研 입사

# “즐거이는 연구로 큰 성과”

### 25세 최연소 박사 화제

24일 열린 KAIST 학위수여식에서 25세 나이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에 입사하는 졸업생이 있어 화제다.

주인공은 전기및전자공학과(지도교수 유희준)를 졸업하는 이슬기(사진) 박사.



IMEC-NL(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)

이 박사는 다 음달부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바이오·메디컬분야의 유럽 최대 전자연구소인

에서 일하게 돼 이달 말 출국한다.

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지난 2004년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이 박사는 이후 3년 만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해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. KAIST에서 배출한 최연소 박사학위자의 나이는 25세로 이 박사가 역대 두번째다.

이 박사는 “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면서 연구했더니 뜻밖의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”며 “해외 경험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싶다”고 말했다. 김형석 기자 kimsh@daejonilbo.com